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인조과 동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새 천년의 미소 불상에서 찾았다”

지면으로 다시보는 '미소의 원류를 찾아 실크로드를 가다'



8세기에 축조된 경주 석굴암 본존불.

## 소박한 한국의 미소는 '아르카익 스마일'

98년 새해 첫날, 실크로드의 최종착지인 신라의 고도 경주 석굴암 본존불의 단아하고 소박한 미소로부터 '미소찾아 삼만리'는 시작된다. 석굴암과 함께 문무대왕 해중릉을 바라보고 있는 굴굴암 마애불 역시 소중한 미소다. 경주 남산에 시골 새 썩사처럼 다소곳하게 미소짓는 불국 석불 좌상, 동지승처럼 순진하고 귀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남산 탑리 석조 삼존불,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신라 불상들은 거의 미소를 짓고 있다. 몇점의 불두에만 남아 있는 백제의 미소중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서산 마애 삼존불, 복스러운 얼굴, 살짝 벌린 입에 해맑은 미소가 마치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줄 것만 같다. 이렇게 우리 불상에서 볼 수 있는 미소를 '아르카익 미소'라 한다. 그리스의 아르카익 시대, 즉 기원전 5~6세기에 나타난 조각상의 미소로 '저음' 또는 '원초적'이란 뜻을 지닌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고졸(古拙)한 미소'로 표현된다.

## 조용한 미소 머금은 日 백제 관음상

백제 문화의 영향이 컸던 일본 나고야 시립박물관에서 공개된 백제관음상. 작년 4월 프랑스에 나들이를 가 최고의 미소라고 극찬을 받은바 있는 이 불상은 만물의 움직임을 정지시킨 듯 조용한 그 자체의 미소이다. 이 백제관음과 함께 생략을 이룬 일본 광릉사의 목조 반가사유상도 아르카익 미소의 영향을 물려 받은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 편안한 미소의 복귀 불상들

그 옛날 한반도와 많은 교류를 했던 중국의 기묘한 산동반도. 그곳 청주에서 가까운 용흥사에서 2년전 발견된 4세기 경 북위시대의 불상. 북위시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북위 불상의 미소가 가장 편안하고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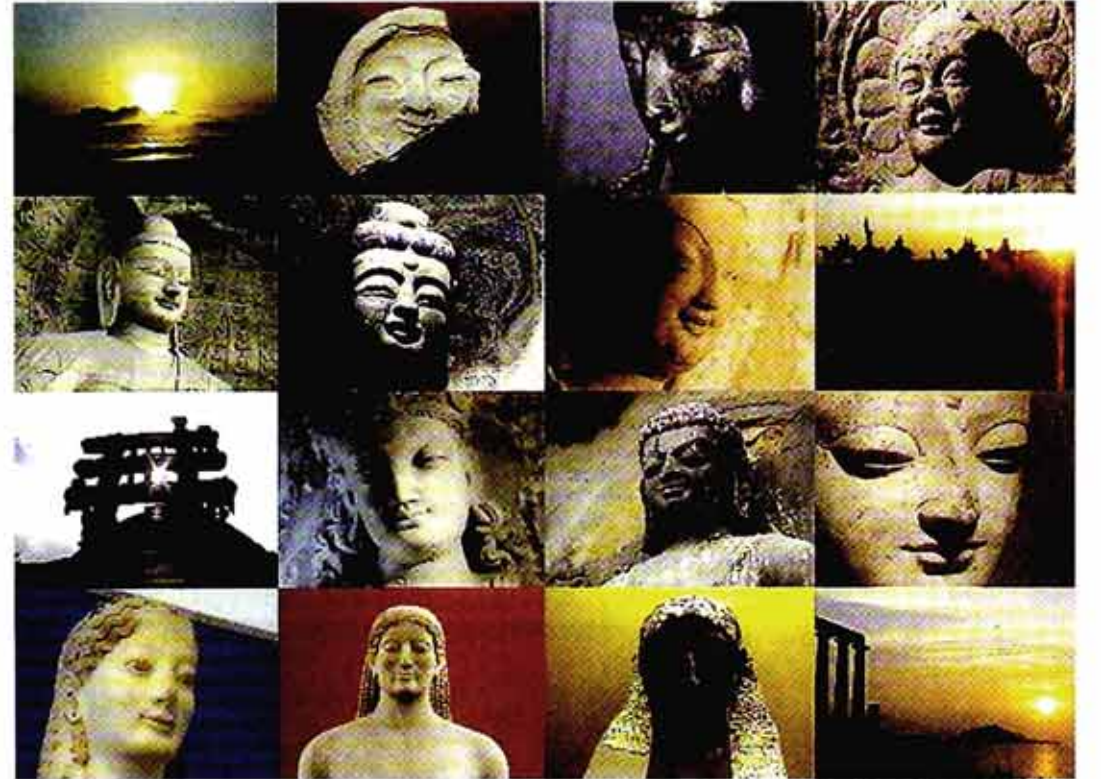
북위시대를 대표하는 빈양 중종의 불상은 고졸한 미소를 띠고 있는데, 우아하고 고귀한 품격까지 보여준다. 중국의 미소를 창출해 냈던 선비족의 복귀. 첫 수도였던 대동에는 운강석굴이 있다. 운강석굴에서 대표적인 제20대 대불의 생동감 있고 활기에 찬 미소는 당시 선비족의 기상을 잘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4~5세기에 조성된 중국 신서성 대동시 운강 석불.

단아하면서도 신비로운 경주 석굴암본존불의 미소, 소박하면서도 해맑은 서산 마애삼존불의 미소, 불상에는 그 나라 민족의 심성과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우리 불상 특유의 신비롭고 고졸한 그 미소는 어디서 온 것일까. KBS-1 TV가 11월4일과 11일 방영한 '미소의 원류를 찾아 실크로드를 가다'는 한국 불상의 미소가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장장 2시간 대장정에 걸쳐 추적한 기행형식의 다큐멘터리. 이 프로는 실크로드의 최종착지인 신라의 고도 경주

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그 미소의 근원을 찾아가며 세계 문화의 본질은 하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제 한파 등으로 웃음이 사라져 버린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민족의 상징인 단아하면서도 소박한 미소를 되찾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 방송이 나간 뒤 이 프로의 연출자인 정수웅감독과 방송사에는 사할과 불자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볼 수 없겠느냐는 문의가 쇄도하기도 했다. '미소의 원류를 찾아 실크로드를 가다'를 지면에서 펼쳐본다.



고 있는데, 우아하고 고귀한 품격까지 보여준다. 중국의 미소를 창출해 냈던 선비족의 복귀. 첫 수도였던 대동에는 운강석굴이 있다. 운강석굴에서 대표적인 제20대 대불의 생동감 있고 활기에 찬 미소는 당시 선비족의 기상을 잘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이외에도 여성처럼 아름답게 짓는 미소, 담담한 채구에 자신에 찬 미소 등 색이 바래고 도색이 벗겨져도 미소만은 아직 뚜렷이 남아 있다. 하지만 북위시대가 지나면서 미소는 서서

**인터뷰** 미소의 원류를 찾아... 기획·연출 정수웅 감독

**“미소의 본질은 자비로움에 있죠”**

“불상이나 조각에 나타난 미소는 그 나라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소의...”의 기획·연출·대본·촬영·편집 등을 혼자 맡아 '1인 제작시스템'으로 이 작품을 완성한 다큐서를 대표 정수웅감독(55).

정감독은 이 프로를 촬영하면서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유목민들을 만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해발 5천미터의 도시 카쉬미르에

서 고산병에 시달리기도 했다.

경제 한파이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우리의 미소를 되찾아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미소를 찾아 나섰다. 정감독은 “세계 문화속에 새겨져 있는 미소의 모습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인 점은 갈등과 식탁함으로 가득찬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여유와 따뜻한 그리고 자비입니다”고 피력했다.

프로듀서는 시대 상황을 잘 해석해

그 속에 녹아 있는 메시지와 정신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정감독은 수 많은 다큐멘터리를 1인 시스템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귀재'로 알려져 있다.

또 그는 79년 KBS프로듀서로 재직하며 연출한 '비구니의 세계 석남사'로 KBS방송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이번 '미소의 원류를 찾아...'로 97 방송위원회대상 기획상과 올해 제 6회 브리태니콘대상 상을 받았다.



7~8세기에 만들어진 간다라 불상.

히 사라져가고 어딘지 근엄한 얼굴로 바뀌어 가는 듯 하다.

## 내면 깊숙히 숨겨진 간다라의 미소

미소의 원류를 찾는 대장정은 중국의 서쪽 끝 천산산맥을 따라 달리면서 다시 이어졌다. 호탄박물관에서 만난 불상들은 미이라 처럼 그 형태를 겨우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더러는 당시 영화스러웠던 시절의 미소를 희미하게나마 지키고 있어 가슴을 여미게 한다.

실크로드의 나그네가 발길을 재촉한 곳은 서역 간다라국의 수도였던 페샤와르에서 70km 떨어진 탁티 바이. 이곳에 동견의를 깔치고 명상하는 모습을 한 불상은 내면 깊숙히 미소를 숨긴 듯하다. 또한 그리스적인 요소를 많이 띠고 있다. 이는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 여세를 몰아 페르시아와 서인도를 정복함으로써 동서문화 교류의 싹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간다라를 벗어나 인도로 들어왔다. 인도 불상의 첫 발생지 마푸라. 그리스 영향이 짙은 간다라 불상과 달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두려움 없는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초현실적의 잔잔한 미소가 눈에 들어온다.

## 평화롭고 안정된 그리스의 미소

고도 아테네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곳은 아크로폴리스산전. 기원전 6세기경, 소위 아르카익 시대에 건설된 이 신전 아래쪽 박물관에는 이 시대의 조각품들이 진열돼 있다. 이 아르카익시대의 조각들은 여성상과 남성상이 대부분인데 여성상은 코레, 남성상은 쿠로스와라고 불린다. 코레상들은 어느 것이든 공통적으로 입꼬리를 약간 올려 미소를 짓고 있는데 이를 학술적으로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한다. 이나비소라는 지방에서 출토된 쿠로스상에도 예외없이 미소가 표현돼 있다. 조각은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반영한다. 이로 미루어 아르카익 시대가 얼마만큼 평화스러웠는가를 짐작케 해준다.

경주 석굴암에서 출발해 중국, 간다라, 인도를 거쳐 그리스에서 만나본 수많은 미소들. 그 고졸한 미소들을 뒤로 한채 21세기 새 천년의 미소가 떠오르려 하고 있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아르카익시대에 만들어진 쿠로스상.

## 맑은 소리로 중생교화

불화와 성화비고 33장면 22 악기

중교화에서는 이상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갖가지 아름다움으로 시각적인 장엄을 한다. 여기에 더하여 천녀들이나 천사들이 흥겨운 모습으로 나발, 피리, 장고 등 각종 악기를 연주하게 하여 소리와 동작이 조화되어 이곳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이상적 세계인 정토의 관경(觀境)을 그린 '관경변상도'나 감로탱화, 범종이나 탐, 부도 등 그림이나 조각에서는 불교의식을 행하는 장면을 직접 묘사하거나 천녀들이 각종 악기를 다루며 흥겨워하는 모습이 표현

된다. 이들 악기들은 소리를 시각화하여 그 아름다운 소리로 정토가 한층 장엄될 뿐 아니라 그 아름답고 맑디 맑은 음악소리를 들음으로써 무명에서 빠져있는 중생의 교화와 구제의 의미까지 띄고 있는 것이다. 성화에서도 천국이 표현될 때는 악기를 연주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진다.

왼쪽 파계사의 불화와 오른쪽 성화 '최후의 심판'은 두 그림 다 천녀와 천사들이 나발 비슷한 악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 '천주악상', 파계사 불단, 1780년.

◇ 요한네스와 니콜라우스작 '최후의 심판(부분도)', 11~12세기, 로마 마르티오성당 불단.